

No. 2013-15

일본 경제 동향

(Japan Weekly Economic Digest)

2013. 04. 08

- ① 일본경제지표
- ② 주간경제이슈
: 일본은행, 초강력 금융완화책 결정
- ③ 경제정책동향
- ④ 일본기업동향
- ⑤ 한국관련워치

1 일본경제지표

□ 주간 현황지표

- 추가 금융완화 결정 영향으로, 4월 4일 장기금리가 0.455%로 사상 최저치 기록
- 추가 금융완화 결정에 따른 엔 매도 수요 증가 영향으로, 엔저 폭 확대

구 분	4.1(월)	4.2(화)	4.3(수)	4.4(목)	4.5(금)
엔화의 달러 환율 (달러당)	93.89	93.05	93.53	93.80	96.85
엔화의 원화 환율 (100엔당)	1,179.28	1,196.82	1,191.63	1,205.40	1,166.31
넷케이 평균주가 (종가, 엔)	12,135.02	12,003.43	12,362.20	12,634.24	12,833.64
장기금리 (10년물 국채금리, 연율 %)	0.555	0.560	0.550	0.455	0.460

□ 주요 거시경제지표

- 2013년 2월 경상수지는 4개월 만에 6,374억 엔 흑자로 반전

구 분	2011	2012	2012			2013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실질GDP증가율(연율,%)	0.3	(2.0)	0.2			...		
수 출(천억엔)	653	(637)	51	50	53	48	5.3	...
수 입(천억엔)	697	(707)	57	59	59	64	6.1	...
對한국 수출	52.1	(49.1)	3.94	3.93	4.35	4.01	4.25	...
對한국 수입	32.9	(32.4)	2.70	2.82	2.84	3.12	2.92	...
직접투자(억달러)	(1,157)	(1,223)	339			...		
對한국 투자	(24)	(40)	9.4			...		
소비자물가(%)	0.0	(0.0)	0.0	▲0.3	▲0.1	▲0.3	0.1	...
실업률(%)	4.5	(4.4)	4.2	4.2	4.3	4.2	4.3	...
경상수지(천억엔)	76.2	(47)	3.8	▲2.2	▲2.6	▲3.6	6.4	...
엔화	對미달러	79.1	(80.1)	79	80.9	83.6	89.2	93.2
환율	對원화	(1,391)	(1,413)	1,401	1,344	1,288	1,197	1,166
외환준비고(기말, 천억달러)	12.9	12.7	12.7	12.7	12.7	12.7	12.6	12.5
국채금리(10년, 연율%)	0.985	0.560	0.775	0.700	0.795	0.740	0.665	0.560

주1) ()는 역년(1~12월)기준

2) 소비자물가, 실업률, 환율, 국채금리는 기간평균, 자료: 일본경제신문, 재무성, 한국은행

□ 주요 보고서 워칭 사이트(report watching site)

- 『2013년도 서비스산업의 해외전개 실태조사』 JETRO, 4월2일
*출처:<http://www.jetro.go.jp/jfile/report/07001303/hokokusho.pdf>
- 『아시아경제에 대한 엔저의 영향 :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노무라재단, 4월4일
*출처:http://www.nomurafoundation.or.jp/data/CCMR-7-1_Sp2013_02.pdf
- 『2013년도 일본정부 경제전망』 재무성, 4월5일
*출처:http://www.mof.go.jp/public_relations/finance/201303e.pdf

② 주간경제이슈 : 일본은행, 초강력 금융완화책 결정

□ 양적·질적 금융완화책 총동원

- 일본은행이 4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2년내 물가 2% 상승목표를 최대한 조기 달성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는 양적, 질적 금융완화 조치를 결정
- 구로다 신임 일본은행 총재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금융완화임을 강조
 - 단계적인 완화를 실시했던 종래의 방법을 배제하고,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명확한 물가목표를 설정, 대담한 완화책을 실시하여 기업·가계의 기대를 높이기 위한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의 시도라는 것

□ 금융완화의 정책목표 변경

- 정책목표를 금리에서 통화량(본원통화)으로 전환, 시장에 자금공급량을 2년간 2배로 확대
- 그동안 일본은행이 유도해 온 단기금리는 거의 제로에 근접해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인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완화의 정책목표를 변경

□ 국채 및 리스크 자산의 매입 확대

- 국채 및 상장투자신탁(ETF)등 리스크자산 매입 확대
 - 설비투자과 주택구입자금의 자금차입기준인 장기금리 하락을 촉진하기 위해, 구입대상 국채의 범위를 확대하여 상환기간이 40년인 초장기국채까지 매입
 - 리스크자산의 매입 확대를 위해 주가를 지탱해 주는 효과가 있는 ETF는 연간 1조엔, 부동산에 효과가 있는 부동산투자신탁(REIT)은 연간 300억엔으로 확대

□ 정책효과 파급의 3가지 루트

-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단기금리가 0%까지 하락함으로써 한계에 달했던 종래의 금융정책 외에도 효과가 파급될 수 있는 루트로서 3가지를 강조
 - 첫 번째는 일본은행이 ETF를 매입한 대금으로서 채권시장이나 주식시장에 대규모 자금이 유통되는 루트로 10년물과 20년물 국채보다 기간이 긴 채권의 금리를 하락시켜 자산 가격 상승효과를 기대
 - 두 번째는 풍부한 자금을 기반으로 금융기관이 외채나 주식 등 보다 리스크가 높은 자산에 대한 투자나 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리는 효과임
 - 세 번째는, 일본은행이 디플레이탈출을 위한 강력한 금융완화를 강조함으로써, 기업과 가계의 물가상승 기대를 자극하여 투자나 소비를 활성화하는 루트임

- 일본은행은 2014년 말까지 자금공급량을 약 132조엔 늘려, 3개의 루트를 통한 경기진작을 겨냥

□ 리스크와 부작용, 장기금리 급등 우려도

- 시장의 예상을 훨씬 상회하는 대담한 금융완화를 단행함으로써, 일본은행은 새로운 리스크나 완화책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
-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일본은행이 재정적자를 메꾸어주는 재정파이낸싱에 빠지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부인
 - 이는 일본은행이 일본정부로부터 직접 국채를 사들이는 방식이 아니고 이미 발행된 후 일정기간 경과한 국채를 시장을 통해 매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 그러나 일본정부의 재정규율이 느슨해지면 시장으로부터 신용에 타격을 입게 되어 장기금리가 급등할 우려도 남아있음
- 그리고 과거보다도 만기까지 기간이 긴 장기국채 매입에 나섬으로써 일본은행이 완화책을 거두어들이는 출구전략에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
 - 장래 2%의 물가목표를 달성, 일본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국채를 시장에서 매각할 때, 매각손이 발생할 리스크가 지금보다 높아지기 때문임
- 따라서 구로다 총재는 현시점에서 상정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완화효과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고, 디플레이션 탈출의 호기를 잡기 위해서는 정부쪽에서도 효과적인 성장전략을 서두를 필요가 있음을 강조

□ 경제계 대환영

- 일본은행이 결정한 금융완화책에 대하여 일본의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
 - 일본은행의 새로운 금융완화책은 민간부문의 투자와 소비를 과급시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만큼, 기업경영자들 사이에서는 시장의 기대에 따른 판단이자 유익한 정책결정이라는 기대가 압도적으로 많음

□ 금융·외환시장의 반응

- 금융완화책이 발표되자 4일 금융시장은 고주가·고채권가·엔저 지속, 시장이 기대를 상회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반영
 - 장기금리는 신규발행 10년물 국채금리가 한때 0.425%까지 하락, 2003년 6월 이후 최저치 갱신
 - 도쿄주식시장에서 닛케이평균주가도 전일보다 272엔 34전(2.2%)이 오른 12,634엔 54전
 - 외환시장에서도 일시적으로 달러당 96엔대까지 엔저 폭이 확대

③ 경제정책동향

□ 산업재생 · 사업재편을 위한 감세 확대

- 일본정부가 산업구조 개혁을 위한 감세 검토에 착수. 현재는 전액 출자회사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있는 모기업과의 손익 통산 대상을 공동출자회사 등에 확대하는 외에,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액에 따라 법인세를 경감하는 안이 부상
-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정 · 재생상은 의료 등 성장분야를 대상으로, 새로운 법인세 감세에 대한 검토 입장을 표명
 - 향후 5년간 긴급 구조개혁 기간 중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여 일본경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목적을 둔 것임
- 일본정부는 일본경제의 잠재성장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신진대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법인세 인하를 중심으로 산업경쟁력회의에서 창업과 사업재편에 의한 경기부양방침을 제시
- 경제산업성은 2014년 세제개편안에서 다수의 기업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합동회사(LLC)와 출자기업간 손익통산을 인정하도록 요구
 - LLC가 적자인 경우 출자비율이 따라 적자 분을 모기업이 이익에서 공제, 법인세를 줄일 수 있게 됨
 - 합동회사는 설립 및 유지비용이 저렴하여 설립이 증가하고 있는데 일본 법무성에 의하면 2012년에 처음으로 10,000개를 넘음
 - 손익통산이 가능하게 되면, 동일 업종의 기업들이 공동으로 적자사업을 떼어내는 사업재편을 추진하기가 쉬워짐
- 모기업과 자회사간 손익을 합산하는 연결납세제도의 확충도 요구하고 있음
 - 현재는 완전자회사만 인정하고 있으나 타사와 공동출자로 설립한 자회사에도 확대하겠다는 것임
 - 80%이상 출자하는 자회사의 경우 손익통산이 가능한 미국의 예를 참고하여 손익통산의 범위를 검토할 방침
- 이와 같은 법인세 감세가 실현되면, 기업들은 적자부문을 떼어내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사업재편을 추진하기가 용이해 짐
 - 그러나 정책당국으로서는 적자기업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설계를 과제로 안게 됨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활성방안도 검토 중인데 벤처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에 감세하는 엔젤세제를 법인에도 창설

- 투자액의 20~30%를 상한으로 세액공제나 투자한 벤처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에 대한 과세기한을 연장해 주는 안도 나오고 있음
- 그 밖에 의료 및 건강, 에너지 등의 업종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감세해주는 안도 제안
- 다만, 일본 정부로서는 당분간은 법인세의 기본세율(부흥특별법인세를 제외한 25.5%)의 인하보다도 연구개발 등에 집중한 정책감세를 선행시킨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음

4 일본기업동향

□ 히타치와 동경전력, 전력시스템 수출확대를 위해 제휴

- 히타치제작소와 동경전력이 제휴, 송배전을 중심으로 한 전력시스템의 수출사업을 추진키로 함
 - 兩사는 해외 전력사업자에게 설계기술과 노하우를 제공, 설비 수주 확대를 겨냥한 컨설팅회사를 공동 설립하여 4월부터 영업을 개시
 -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신흥국들은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전력인프라를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임
- 자본금은 약 5,000만엔으로 히타치가 80%를 나머지는 동경전력이 출자
 - 연간 매출목표는 약 10억엔, 히타치는 발전설비 등의 수주확대를 전망
- 주된 사업지역은 송배전망이 불안정한 동남아시아, 인도가 중심이나,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도 대상임
 - IT나 축전지를 사용하여 전력공급을 제어하는 스마트그리드(차세대송전망)기술도 판매할 계획임
- 히타치는 작년 11월 미쓰비시와 해외시장 개척을 가속화할 방침이고, 동경전력도 해외컨설팅 목표를 200억엔으로 설정하고 해외사업에 박차
- 국제에너지기관(IEA)의 시산에 의하면, 2012~2035년 기간 중 전력설비투자액은 16조 8,670억달러, 이중 40%이상이 배전 및 송전용. 동남아시아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전력망 정비가 확대될 전망
- 일본은 민관공동으로 원전수출에 주력해 왔으나, 원전사고로 수주활동이 중단된 상태이며, 고효율 화력발전과 치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송배전망에 대한 평가가 높아 인프라수출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

□ 민관 공동으로 방재기술관련 아시아 시장 개척

- 일본기업들이 지진과 태풍 등이 많은 일본의 풍토에서 배양된 방재기술을 새로운 수출사업으로 육성, 인프라 투자증가가 예상되는 아시아시장을 공략
 - NEC는 대만에서 자연재해의 피해정보를 추적,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수주하였고, 스미토모공업과 종합건설회사들도 독자적인 기술로 수요흡수를 겨냥
 - 일본정부도 해외사업을 지원할 태세를 보이고 있어 일본의 인프라수출 저변이 확대될 전망

5 한국관련워치

□ 일본의 강제 수입 감소와 한국산 제품의 가격상승

- 엔저로 일본의 강제 수입량이 감소, 2년 5개월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한국산 철강제품의 가격상승에 따른 영향임
- 일본의 철강업체들은 시장 환경이 호전되었다고 판단, 엔저가 진행된 작년 말부터 강재가격을 10~20% 인상하겠다는 뜻을 표명
 - 상사나 강재도매상들이 재고를 늘리는 바람에 가격인상이 요인이 되기도 했으나, 3월 이후부터 실수요가 줄어 가격상승이 둔화
- 일본철강연맹이 1일 발표한 철강 수출입 실적개황에 의하면, 2월 보통강 강재 수입량은 전월대비 13% 감소한 29만 6,112톤으로 4개월 연속 감소
 - 이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한국으로부터 수입이 20만 1,709톤으로 전월대비 18% 감소. 엔저 하에서 일본의 상사들이 해외철강회사에 대한 발주를 줄임
- 원고도 겹쳐, 포스코 등이 1월부터 대일 박강판 판매가격을 톤당 약 5,000원 인상(8% 전후)
 - 품목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이전에는 20% 저렴했던 일본제품과의 가격차이가 약 10%로 축소
- 일본의 대형 상사들은 한국산 강재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사양(스펙) 등을 고려하여 수입 강재를 외면하는 상사도 늘고 있다는 것
 - 한국 현대제철도 수출채산을 맞추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대일 수출물량은 공급 가능한 최대물량이라는 것
- 한편, 일본의 철강업체들은 엔저가 진행된 작년 말 이후 H형강이나 이형봉강, 열연강판 등 많은 품목을 대상으로 톤당 10~20%의 가격인상을 발표
 - 일본 국내 일반유통(도매)가격은 현재, 수입품과 경합하는 열연강판의 경우 작년 말에 비해 3%비싼 톤당 59,000~60,000엔. 2월말에는 1년 10개월 만에 상승하였으나 3월 이후는 보합 추세
- 일본의 철강업계는 제조업용 강재공급도 과거 엔고에 따른 공장의 해외이전으로 국내고객들이 줄어 내수회복이 늦어지고 있음